

완주 농산물 수출길 열려

삼례 멜론 · 화산 양파 · 애플수박 등 인기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의 우수 농산물이 홍콩 수출 길에 오른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으로 50톤을 처음 수출한 삼례 멜론이 현지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 물량을 늘려 다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콩 수출 길에 오른 완주 우수 농산물은 삼례 멜론 5.6톤과 애플수박, 화산 양파 등이다.

삼례 해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멜론 재배지는 점질사양토의 토양과 일조량이 많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보다 네트가 선명하고 당도가 높고 곱질 멜론 생산의 적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례 멜론은 당도가 최하 14브

릭스에서 최고 22브릭스까지 나와 수박보다 달며 품질도 좋아 현지에서 인기가 많다.

삼례해진멜론작목반에서 재배하는 멜론의 면적은 11ha정도이며 올해는 362톤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멜론 수출은 삼례해진멜론작목반과 삼례농협 그리고 수출업체인 (주)케이아트 노력으로 성사되었으며, 올해는 두 배 정도 늘어난 120톤 정도를 수출할 예정이다.

홍콩에서 삼례 멜론을 수입하는 쉬퉁그룹 바이어들은 지난 12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박성일 완주군수와 수출 관련 면담을 진행했으며, 멜론 생산자인 삼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멜론 재배 상태, 당도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크게 만족하며 수입량을 늘릴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FTA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농가의 손해가 많은 지금 완주군의 우수한 농산물 수출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 수출 가능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멜론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 교육 및 컨설팅과 수출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군, 농작물 바이러스병 진단 능력 강화

첨단 ELISA 분석법 도입 정확한 바이러스 진단가능

진안군은 22일 진안고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진단장비 ELISA(효소결합 면역흡착 측정법)를 도입하여 바이러스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수박에는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CGMMV), 매론 괴저 반점 바이러스(MNSV), 고추에는 토마토 위조 반점 바이러스(TSW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CMV) 등이 발생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바이러스들은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에 의해 발생되어서, 이후에는 사람의 손이나 농기계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기존 진단방법인 바이러스 현장 진단키트(RIGS 급속 면역 금 나노입자 진단키트)는 현장에서 간단히 바이러스



스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바이러스 감염양이 적으면 진단이 부정확하고 유통기한도 1년 정도로 짧아 매년 진단 키트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추, 수박 등 원예작물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 4종(CMV, CGMMV, TSWV, PMMoV)은 최신 ELISA분석법으로 정확히 검정해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로 인한 실손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이러스 진단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ELISA분석법으로 정확히 검정해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과천 렛츠런파크서 홍보

오미자젤리 등 나눔행사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T/F팀은 대도시 시민홍보를 위해 지난 20일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축제 사전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날 축제 T/F팀은 렛츠런파크 입장객을 대상으로 축제리플릿과 함께 장수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젤리, 오미자캔디 나눔행사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지역어메니티 자원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 사과, 오미자 등)을 테마로 활용한 체험형 축제로 지난해 33만명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5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리는 등 명실 공히 전국 우



수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오는 30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를 위해 축제 미니홍보관,

장수 한우 슈퍼맨, 장수 사과 슈퍼걸을 찾아라!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축제 사전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마이산관광단지 주차장 30일부터 본격 운영

지난 1979년 마이산도립공원의 지정과 함께 조성된 상가와 주차장이 마이산과 너무 근접하게 조성돼 있어 진안군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마이산도립공원 밖 마이산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가와 주차장 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마이산관광단지 주차장은 이미 완공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신축 상가들의 건의에 따라 연기되었던 주차장 운영을 최근 상가측과 협의하여 오는 8월 30일부터 운영키로 확정하였다.



오랜 기간 내방객들은 차량을 통해 마이산북부상가와 주차장을 이용하여 마이산을 탐방할 수 있었으나 관광단지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마이산 탐방하고자 연정되는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나, 진안군은 마이산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마이산의 참모습을 가까이에서 조망하면서 체류형의 건강한 여행명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반딧불축제서 만나는 '무주아리랑'

작곡가 김대성 · 팍페라 가수 임태경 협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팍페라 가수 임태경과 작곡가 김대성, 그리고 45인조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무주아리랑" 음악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아리랑" 음악제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성년이 되면서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9월 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예제문화관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아리랑"에서 연주되는 곡들은 모두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는 국악 작곡가 김대성이 작곡한 작품들로 교향곡 1번 '무주아리랑'을 포함해 8곡이 연주된다.

연주되는 곡들의 작사와 노래는 모두 크로스오버 테너 임태경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에서는 △서곡 '무주의 신명', 수난 그리고 미래'와 △피아노 협주곡 1번 '한민족 기상곡', △해금과 관현악을 위한 '다랑쉬', △가야금 협주곡 '하나의 꿈'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Queen

'Who wants to live forever' (독창), △테너와 모듬 북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혁명', △테너와 서양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무주' _ 1악장 덕유산(관현악), △2악장 소아나투(관현악), △3악장 무주아리랑(테너와 관현악)을 감상해볼 수 있다.

무주아리랑 김건우 추진위원장은 "선조들의 놀라운 문화와 당당한 기상이 담긴 새로운 아리랑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통해 교향곡 무주아리랑을 처음 발표하게 돼 기쁘고 무주와 반딧불축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지원단 총괄운영 김영광 팀장은 "무주를 내용으로 한 교향곡이 김대성과 임태경이라는 두 거장에게서 탄생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찾아 준 관객과 주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선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완주군, 사회조사 실시

완주군은 오는 9월 7일까지 2016년 전북 및 완주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의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표본조사이다.

완주군 사회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800가구 중 만 15세 이상의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원이 대상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사회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며,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54개 항목 중 39개 항목(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복지, 문화·여가, 사회참여)은 전북 공통항목이며, 15개 항목은 군 특성항목으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역점시책에 대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2일 조사요원 24명을 대상으로 조사지침 및 조사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수군, 청정장수 클린 나눔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20일 김윤섭 부군수와 군청직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수읍 일원에서 청정장수 클린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주최로 마련된 이날 참석자들은 사수시장과 상가에서 지역주민을 EM활성액과 EM비누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가정에서 친환경 생활습관을 실천해 청정장수를 지켜내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가지 캠페인에 이어 오후엔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썰, 운전자 시야방해물 점검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교통관리계(계장 김덕상)는 22일 무주군 관내 30번 국도, 무주읍내 도로 횡단보도, 구조물 유무상황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주변을 점검하여 운전자 시야방해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 배전박스, 현수막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지도 점검을 했다.

최성규 서장은 "반딧불축제에 방문한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완벽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중·고등학교로 구성된 또래상담동아리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또래상담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날 학생들은 솔리언 또래상담자로서의 자질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심화교육을 받았다.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와 iam(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또래상담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교우관계 개선에 한 몫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또래 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교육 실시

진안군보건소는 23일 안천면 상리마을, 26일 안천면 율현·장동 마을에서 지난 6월에 보급한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생명사랑 녹색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라북도, 진안군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지원을 받아 안천면 율현, 상리, 장동 3개 마을 6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약안전보관함을 각 농가에 보급해 농촌지역에 안전한 농약사용과 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농약으로 인한 사고와 자살을 예방하고, 각종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상

호간 정서적 지지 공동체를 구축해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지난 6월에 농촌지역에서 자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총동적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2천 300만원 상당의 농약안전보관함 67개, 폐농약수거함 2개를 전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그치지 않고 농약안전보관함의 적절한 사용 여부 및 열쇠 사용 여부, 사용의 효율성 및 만족도 조사 등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명사랑 녹색마을'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정천면에 있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구, 예코에듀센터)'에서는 덕유산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 고통 함께 나뉘요'

진안 건강나누리 캠프 호응

진안군 정천면에 있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구, 예코에듀센터)'에서는 덕유산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지난 7월 말부터 현재까지 4회 운영하였으며, 오는 8월 29일부터 마지막 5회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강나누리캠프는 국립공원의 자연체험,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아토피환자와 부모의 교육 및 상담, 제철자연식에 대한 푸드야카데미 등 각 기관의 장점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2박 3일간의 캠프로 참여 가족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건강나누리캠프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한방피부과

전문의 개인별 상담과 제철자연식에 체험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가정에서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2박 3일간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고통을 나누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안군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아토피 환자와 가족,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